이기는 삶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

올해 1월 중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학교와 집회 및 공연, 각종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고 심지어 올림픽 경기마저도 내년으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사망자가 속출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공포의 도가니로 내몰리고 있다.

빨리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약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백신은 연말에나 가능하다고 하고 당장 필요한 치료약은 5월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코로나19에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코로나19가 빠른 전파속도와 사망자로 인하여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간은 스스로 면역체계를 만들어 각종 괴질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의 승자는 항상 인간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포유류와 조류에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아주 빠르게 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정확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코로나19의 백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백신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치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극대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백신은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약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치료법은 없는 것인가? 치료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해주는 치료약과 치료법이 있다. 열이 높으면 해열제를, 기침을 하면 기침을 다스리는 약을 투여하고 설사를 하면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투여하여 각기 증상을 치료해서 결국 이겨내도록 하는 약과 치료법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법은 감기 예방법과 동일하다. 손을 자주 씻고, 가글 또는 양치를 자주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어 항상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떻게 하여 모 종교단체가 그 기폭제가 되었을까 그 연관 관계를 생각해 보니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모 종교단체가 다른 교회에 파고 들어가 추수 꾼의 역할을 하여 그 교회 신자를 자신들의 신자로 만들거나 심지어 그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수법이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취하여 퍼져나가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모 종교단체가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듯 바이러스도 자신의 분신들을 다른 숙주에 퍼뜨리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그 교인을 택하여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그 단체가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집단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단체 뒤에 숨어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척하는 기독교 또한 다르지 않다. 종교가 기업화되고 정치색을 띠면 끝난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썩어 문드러진 종교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진노(震怒)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설 자리는 없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논할 수 있는 문제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신은 마귀인 것이다. 죽음 자체가 사망의 신인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다시 살 수가 없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으로 될 수가 없다. 부활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마귀는 생명과 반대되는 신이요 사망의 신인고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요가는 몸을 유연하게 해줘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춰준다. 지구력을 향상시켜 허리와 어깨통증, 만성 피로를 완화해 준다. 청소년은 집중력을 기르고, 20~30대는 다이어트나 미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심신 수양은 물론, 뼈, 근육, 관절을 강하고 부드럽게 해주고 성인병을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일상 속 근력운동 특히 나이든 사람에게는 적정한 운동량,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주 3~4회 진행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의 비결이 아닐까요?

근육이 곧 재산^^

동작①: (전신근력, 균형감각, 집중력 향상) 무릎을 잡아 끌어당겨 앉아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곧게 세우고 무릎안쪽을 잡아 배꼽과 허벅지를 가까이 붙인다.

동작②: 숨을 천천히 내쉬며 상체를 뒤로 구부리면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 균형이 잡히면 다리를 쭉 편다. 어깨를 아래로 당겨 목을 길게 늘린다. 20초 유지 5회.

동작③: (척추기립근 근육 강화) 양발을 어깨너비로 확장하고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운다. 무릎을 약간 굽히고 인사하듯 천천히 상체를 90도 정도 앞으로 굽힌다. 골반을 고정한 상태로 허리의 힘으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운다. 3~5회.

동작④: (허벅지 안쪽 근력 강화) 양손은 허리에 두고, 양발을 어깨너비의 1.5배 확장한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우측 (좌측) 무릎이 엄지발가락을 넘어가지 않도록 앉는다. 이때 허리는 펴고 있어야 하며, 우측 (좌측) 다리를 펴서 처음 자세가 되도록 한다. 좌우5회.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75회

때가 오면 운이 열리리니 중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십승 정도령을 찾아오소

格菴歌辭 격암가사

春情춘정에 잠을들어
一夢일몽을 깨들이니
牛鳴聲우명성이 낭자로다
自古及今자고급금 살핀마음
道道聖人一字이네
도도성인일자
無疑무의하니 자세듯소
自初其時자초기시 피는 법이
自靜出자정출이 震動진동이요
無靜出무정출이 妄動망동이네
隨時變易以從道 수시변역이종도를
誰是不知不從道 수시부지부종도요
一字일자일이 變易言변역언이
隨時言수시언이 아니던가
時至無疑시지무의 일러주니
時言明시언명을 듯고보소
大道出明대도출명되는 法법이
時來運數時定시래운수시정이네

춘정에 잠이 들었다가 한 꿈을 깨고 나니 소 울음소리가 낭자하구나. 예부터 지금까지 모든 도와 성인이 살핀 것은 마음 심(心)자 하나로다. 의심할 것 없으니 자세히 들어보소.

처음부터 피는 법이 고요한 가운데서 진동(震動)함이니 고요함이 없는 가운데서 나오면 망동(妄動)이니라. 때(천지 도수)에 따라 역(易)이 바뀌니 이러한 이치에 따라 도를 따라야 하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도를 따를 수 없느니라.

마음 심(心)자 한 자의 일이라는 것이 역(易)이 변한다는 말인데 이는 때(천지 도수)에 따라 변한다는 말이 아니던가? 때가 이르러 의심 없이 일러 주니 때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소.

무극대도(불사영생의 대도)가 나와서 세상에 밝게 드러나는 법은 때를 따라 도래하는 운수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느니라.

大道春風부는 氣勢기세
대도춘풍
大一壯觀대일장관아니러냐
時言天運命仔細하니
시언천운명자세
忽覺情神不忘 하고
홀각정신불망
時至運開시지운개 때를보아
中入十勝중입십승차자들소
順天順天순천순천차자오소
知知白지지백이 上白상백이네
天下第一中原國천하제일중원국이
不一和而되단말가
불일화이

무극대도의 춘풍이 부는 기세가 일대 장관이 아니더냐? 때에 관한 말씀인즉 하늘이 정한 운수와 명수 즉 생사존망에 관련한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잊지 말고 때가 오면 운이 열리리니 그때를 보아 중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십승 정도령을 찾아오소. 하늘의 뜻을 좇아 정도령을 찾아오소. 궁궁 십승 정도령을 아는 것이 상백(上白)일세. 천하제일 중원국 즉 전 세계의 중심국이 될 우리나라가 하나로 화합이 안 된단 말인가?

無知무지하다 嘲笑者조소자야
至公無私하나님은
지공무사
厚薄후박간에다오라네
成就根本알고보면
성취근본
從虛實종허실이 出一출일이라
以南以北是何言고
이남이북시하언
露米相爭必有欣을
로미상쟁필유흔
四海萬姓사해만성 우리兄弟형제
同考祖之子孫으로
동고조지자손
그럭헤도 怨讐원수런고

무지하다 비웃는 자들아! 지극히 공의롭고 사사로움이 없는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오라고 하시네. 세상만사의 성취 근본을 알고 보면 허(虛)와 실(實)이 다 하나에서 나왔음이라. 이남 이북이 무슨 말인고? 소련과 미국이 서로 싸운 결과 필히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니라. 사해(四海) 만민이 다 우리의 형제요 한 조상의 자손인데 그렇게도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朝鮮조선
禮儀東方父母國 예의동방부모국을
어이그리몰나보고
節不知而共産發動절부지이공산발동
하나님前大罪전대죄로다
精神정신망각하여갔고
兄弟不知형제부지하엿스니
이런 痛원통또잇넌가
우러봐도못다울일
仰天痛哭罪앙천통곡죄이네
通合통합하소 通合통합하소
好時不違通合 호시불위통합하소
원수악수짓지말라 알고보면 사람하나
죽인죄가참크구나
운다운다鬼神귀신운다
蛇奪人心사탈인심 저鬼神귀신이
원수따라 魔鬼마귀우네
사람인들 안슬을가

우리 조선(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어 왔고 앞으로 전 세계의 중원국(中原國)이요 부모국(父母國)이 될 나라인데 어찌 그리 몰라보고 철부지 같은 공산정권이 발동하다니 하나님 전(前) 대죄(大罪)로다. 제정신을 잃고 형제마저 몰라보니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있단 말인가? 울어봐도 못 다 울 일이요. 하늘을 우러러 통곡해도 씻을 수 없는 큰 죄일세. 통합하소. 통합하소. 호시절(好時節)이 어김없이 돌아오리니 통합하소. 원수 악수 짓지 말라. 알고 보면 사람 하나 죽인 죄가 참으로 크구나. 운다. 운다. 귀신 운다. 악독한 독사같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저 귀신이 원수를 따라가서 마귀가 되어 우네. 사람인들 슬프지 않겠는가?*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육신통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도인(道人) 몇 명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 도인들은 다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었다. 치열하게 도를 닦은 재밌는 스토리도 있었다. 한 도인은 중학교 졸업 후 우연한 기회에 깊은 산에 들어가 무술과 도를 닦았다고 한다. 열심히 수련을 하니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하산하여 제자들을 모아서 도를 전했다.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육신통을 이룬 엄청난 분이라고들 칭송했다. 그분은 다른 도인들과 다르게 격의 없이 제자들과 디스코텍에 가서 춤도 추고 그런 멋진 분이었다. 일정한 절차를 밟고 나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하루는 그분의 집에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그런데 거실에 코를 푼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분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다. 아니 육신통을 한 분이 감기에 걸리다니… 육신통을 하면 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하거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몇몇은 그분을 떠났던 것이다.

육신통에 대한 글을 옮겨본다.

육신통이란 불교의 수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무애자재(無碍自在)하고 초인간적인 여섯 가지 능력을 말한다.

첫째는 신족통(神足通)으로서 생각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날아서 갈 수 있는 능도(能到)와 마음대로 형상을 바꾸는 전변(轉變), 외계의 대상을 자유자재로 하는 성여의(聖如意)의 셋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성여의는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다.

둘째 천안통(天眼通)은 세상의 모든 것을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천이통(天耳通)은 보통사람이 들을 수 없는 세간의 모든 소리를 남김없이 듣는 능력이다.

넷째 타심통(他心通)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선악을 모두 아는 능력이다. 다섯째 숙명통(宿命通)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과거와 그 생존의 상태를 모두 아는 능력이다.

여섯째 누진통(漏盡通)은 번뇌를 모두 끊어서 두 번 다시 미혹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상의 육신통 가운데 앞의 다섯 신통은 외도(外道)나 특수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지만, 누진통만은 부처님 또한 아라한(阿羅漢) 이상의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출처］ 육신통(六神通)|작성자 kyoungahn

선생님은 육신통 이상의 경지에 계시는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